

글로벌 AI 프로그래머 집중 육성

조선대학교 융합수리과학부

2022년 설립...AI 교육 실습·이론 병행 등 융합교육 실시 핀테크 과정 등 금융공학 진출 가능...AI 분야 취업 다양화

요즘 신문·방송에서 거의 매일 같이 보게 되는 단어가 '인공지능'(AI)이다. 산업 전반에 AI 관련 열풍이 불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법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다양한 기업들은 AI를 산업활동에 접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광주에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AI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 지역대학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수학이론·물리학 병행 융복합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는 AI 지역 특화산업이 탄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AI 관련 지역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2022년 글로벌 역량을 갖춘 AI 인력 양성을 위해 융합수리과학부를 개설했다. 융합수리과학부의 전신인 수학과 교수들이 AI 교육에서 실습과 이론의 균형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물리학과 교수들이 동참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과로 출발했다.

공과대학에 소속된 인공지능학과들은 전통적인 공학적 활용 분야인 이미지 분석과 언어 모델에 치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며, AI의 기초이론교육이나 AI 활용을 위한 콘텐츠와 융합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대 융합수리과학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 AI 프로그래머와 AI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학과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졸업생은 배출되지 않았으나, 전신인 수학과 일부 학생들이 이미 금융수학, 프로그래밍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론과 실습 겸비한 교육
융합수리과학부는 AI 기초에 해당하는 수학과 콘텐츠·프로그래밍 교육을 균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형대수, 확률통계학, 그래프 이론과 조합 이론을 비롯해 최



적화이론, 압축학, 금융수학 등의 과목을 배우며 동시에 노코드ML, 코딩이론 및 실습, 머신러닝기초, 시뮬레이션과 시각화, 기초인공지능실습 등도 학습하게 돼 이론적 기반 위에서 응용을 염두에 둔 실습 교육이 이뤄진다.

AI 분야는 모델의 개발과 수정 그리고 훈련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는데, 모델의 이해는 수학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실제 모델을 제작하거나 교정할 때는 사용 대상인 분야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융합수리과학부의 교육과정은 이를 충실히 반영해 기초수학 및 금융, 보험, 압축 등의 개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I 학습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노코드ML과 딥러닝 개론 등을 통한 학습동기 고취도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학과와 핀테크 융합과정도 개설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융합과정을 통한 금융공학 관련 분야 진출도 가능하다.

◇지역 AI 기반 확장...진로 다양
광주시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AI를 시의 중심적인 발전 방향으로 선정해 가운데 데이터센터 활용하기 위해 NHN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기업들이 광주에 속속 입주하고 있다. 이미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던 기업들도 AI를 통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어 취업·진로에서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분야는 매우 다양해 전신인 수학과에서도 증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교육분야 등에 취업했고, 향후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로 AI 개발자와 데이터 관리 업무로의 취업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AI 교육이 중·고교에서 체계화될 경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AI 교육자가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졸업생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다.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입학 후 수학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적인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지도해 교직을 취득하거나 대학원 진학 후 수학과사로 나아가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융합수리과학부는 광주 AI 산업을 특화하면서 취업 및 진로에서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호텔경영·관광 '글로벌 인재' 양성

동신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최신 트렌드·산업 동향 반영 4개 학과 통합 호텔권 유일 취업 연계 일학습병행제 '주목'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동신대학교가 호텔경영부터 일반경영, 관광경영, 항공 분야까지 관광 산업 관련 학문 분야를 총망라한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올해 본격 운영한다.

동신대 호텔관광경영학과는 전남 지역에서 유일한 4년제 호텔관광경영학과로서 기존의 호텔경영학과와 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경영학과를 통합해 막강한 시너지를 갖춘 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 산업 분야가 융·복합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 학생들이 관광산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면서도 각자 특화 분야를 선택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호텔경영·관광경영 두 트랙 운영
기존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경영학과 등 4곳의 학과들이 통합해 올해부터 호텔관광경영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해 최신 트렌드와 산업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과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 전체를 망라하면서도 ▲호텔경영 ▲관광경영 및 외식창업 등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 산업체 맞춤형 전문자를 양성한다.

먼저 호텔경영 트랙에서는 호텔경영, 마케팅, 서비스 관리 전문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운다.

주요 교과목으로 호텔관광경영학, 객실관리 실무, 호텔식음료 실무, 호텔마케팅, 커피바리스타 실무 등이 개설

됐다. 관광경영 및 외식창업 트랙에서는 관광 및 일반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호텔관광이벤트, 관광영어, 로깅이론, 컨벤션기획실무, 푸드투어리더십, 주강관리론, 전산회계, 서비스리더십,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등의 교과목이 설계돼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킹을 활용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의 유명호텔, 리조트, 여행사 등과 협력해 국제 관광산업 무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외국의 선진 관광 산업을 전남에 접목해 전남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운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취업 지원·로깅이론 프로그램 '눈길'
무엇보다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특히 호텔관광경영 분야 학과 중 호텔권에서 유일하게 취업 연계형 일학

습병행제를 실시해 4학년 2학기에 6개월간 장기현장 실습에 참여하면 인턴으로 근무 후 취업으로 연계돼 취업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3-4학년 등 고학년 중심으로 방학 중 산업체 표준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취업 전담 교수제를 운영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교수진도 탄탄하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커리어를 자랑하는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로깅이론(Localier : 창의융합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로깅이론은 관광 전문 콘텐츠로 무장해 글로벌 시대 로깅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유학생,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취업 경쟁력 향상 1인1자격증 특성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인1자격증 특성화도 화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재학생들이 호텔서비스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카테일주조기능사, 와인소믈리에, 커피바리스타,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컨벤션기획사, 항공예약발권, 서비스경영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도전하고 있다.

최근 수많은 졸업생들이 호텔리어와 리조트, 여행사, 항공사, 크루즈, 카지노,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굴지의 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관광산업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호텔관광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 여행사, 외식업,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대기자



조선대 융합수리과학부 학생들이 융수물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 융합수리과학부는 AI 데이터 분석 사례 등 AI 교육에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제공>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로깅이론 프로그램에 동신대 재학생과 대학원생,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관광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대 로깅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 <동신대학교 제공>

"산업동향서 활발...AI, 도전해볼 분야"

김남권 융합수리과학부장



"대학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수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학부는 산실된 만큼 열정과 성실함이 중요해 그와 같은 학생들을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조선대학교 융합수리과학부는 정원이 2명이며, 현재 전임교원은 7명이다. 비교적 적은 규모여서 교수와 학생 간 친밀한 눈높이 교육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추가로 2명의 신입생이 들어올 예정이다.

김남권(사진) 융합수리과학부장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가까이 다가가 각각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격의 없는 대화로 알아가고 있다. 타 대학의 대형 학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며 "최근 산업동향에

서 AI는 매우 활발한 분야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고 소개했다. 김남권 학부장은 지난 1992년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석사를 받은 후 고등과학원, 서울대 등에서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로 활동하다 2007년부터 조선대에서 수학과 교수로 맡은 이후 융합수리과학부 설립과 함께 학부장을 맡고 있다.

김 학부장은 이어 "우리 학부는 매년 여러 차례의 학생 학술활동과 다양한 자치활동으로 선후배 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즐거운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도움도 주고 받

을 수 있는 핀테크 융합과정, 상위 10%의 학생에게는 교직의 기회도 열려 있어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융합과정은 경영학과와 함께 새로운 금융기법을 적용한 금융공학 융합과정이다.

융합수리과학부는 콘텐츠 교육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능력을 동시에 교육하고 있어 향후 4차산업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학부장은 "새로운 학과, 새로운 분야에서는 열정만 있다면 그만큼 기회도 많다. 콘텐츠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에서 기회를 찾았으면 한다"며 "조선대 융합수리과학부는 수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공부하고 싶은 열정 있는 학생들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김대기자

"관광 실무 능력 키우는 체계적 시스템"

조현진 호텔관광경영학과장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이 높은 취업률의 비결입니다."

조현진(사진) 동신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장은 1일 "전남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문화유산, 해양관광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장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신대 호텔관광경영학과는 이러한 산업 수요를 반영해 호텔&리조트 경영, 관광 마케팅, 항공사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내 관광협회들과 협력해 교

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호텔경영과 관광경영 등 두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신대 호텔관광경영학과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더욱 적합한 맞춤형 진로 설계와 취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명 호텔, 리조트, 여행사 등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 학과장은 "외국어 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영어 및 제2외국어 수업을 필수로 제공하고, 해외 연수 및 해외 대학

과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관광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최신 관광 트렌드·산업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게 국내·외 굴지의 호텔, 리조트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업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학과장은 "취업 관련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산업체와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잡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업 지원체계 덕분에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대기자